

경쟁에 의한 노력의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

김성인 고려대 교무처장

수많은 시행착오

교육부와 대학들이 가위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교육 개혁 정책과 입학전형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100% 무시험제', '예약입학제', '고교장추천제', '특기자 선발' 등이 그 예이다. 일부는 이번의 입시부터 시행되며, 일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에 적용되는 2002학년도에 시행된다. 모두 과열과외를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며, 대학의 획일적인 서열화를 폐지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방안들이다. 이 제도들의 골자는 선발방법의 비중을 수능시험에서 무시험으로 옮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공정한 평가이다. 따라서 무시험 전형에서 현존하는 고교간 학력 차이를 인정할지의 여부가 교육부, 대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 간에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입제도는 숱한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12차례나 바뀌었다고 한다. 고등학교에 대한 평준화 정책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오고 있다. 1969년부터 중학교의 입학시험을 없애, 완전 평준화를 이루었고 큰 환영을 받았다. 그 전에는 '국민학교' 4학년이 되면 많은 집에서 과외를 시켰고, 어린 학생들이 완전 타의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

야만 했다. 제비뽑기로 모든 중학교가 평준화된 후, 국민학교에서 '교과 과외'는 사라지고, '특기 과외'가 생겨났다. 그 덕택으로 평준화 이후의 세대들은 공부만 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악기 하나씩은 다룰 줄 아는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1974년부터는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여 고등학교까지 평준화시켰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몇몇 고등학교가 학부모들과 단합하여 노력하더니, 다시 신흥 일류 고등학교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대학입시에서 크게 부상하였다. 정부에서는 '83년부터는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고등학교들을 설립하였다. '84년에는 평준화에 따른 '서울 8학군'의 학력 편중에 대한 보완으로 변두리 지역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를 내주었다. 이 때부터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가 초일류 고등학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교육부는 고교간의 학력 차이를 인정하는 고교등급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신 문제 때문에 많은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자퇴하였고, 우수한 학생들이 이들 학교로의 진학을 기피하고 있으며,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미달사태를 빚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 고등

학교들간에는 정말로 학력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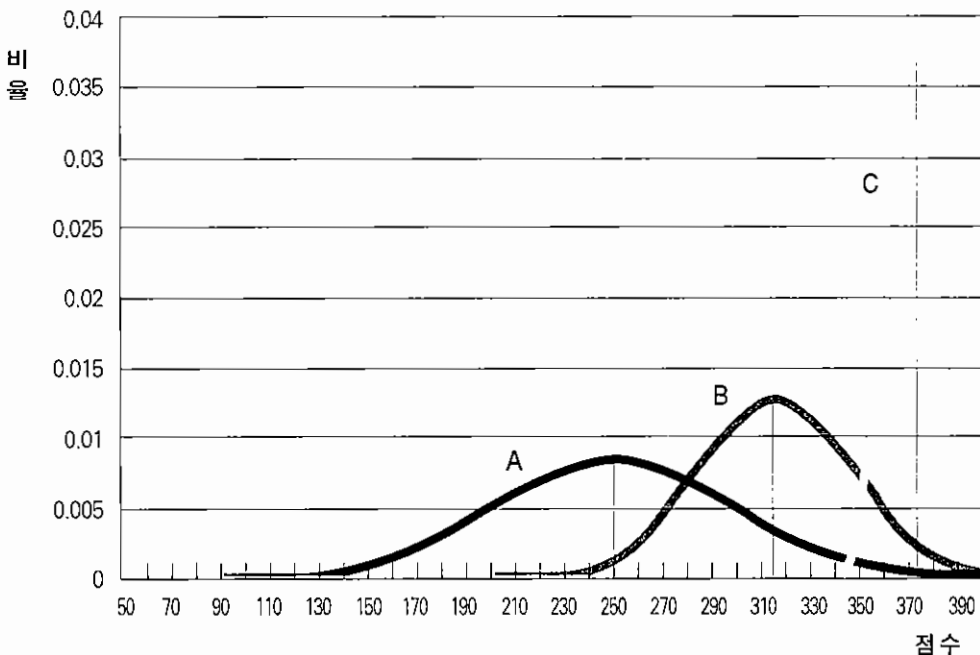
고교간의 큰 학력 차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 사실이다. 아래 <그림>에는 세 개 고등학교의 '97년도 수능시험의 실제 점수 분포가 나와 있다. C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성적 평균이 370점이고 많은 학생들이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반면에, A고등학교에서는 평균이 이보다 무려 200여 점이나 낮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를 볼 때, 수능시험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수능 시험의 대상이 A고등학교 학생이었다면 이 시험의 출제는 잘된 것이다. 그러나 C고등학교가 대상이라면 이 시험의 출제는 크게 잘못된 것이며,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기는커녕 필요

없는 공부를 하여 능력과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이 학교 학생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공부를 시켜서 자질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학력 차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쟁에 의한 차이 인정

하나의 안이한 해결 방법은 학교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60년대까지 지속되어 온 일류 고등학교가 '하향 평준화' 정책에 의하여 없어지더니, 몇 년 전부터 다시 나타난 특수목적고나 비평준화 명문 고등학교들도 그 존재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그림>의 B고등학교의 수준으로 통합되어서는 국력의 커다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예전의 일류 고등학교 출신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를 이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



<그림> 고교별 성적 분포 : 이과

히려 고등학교를 차별화 하여 영재를 키우고, 자유경쟁에 의하여 자질을 힘껏 발휘하게 하며, 능력에 따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 입국 즉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일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잠재력을 갖춘 영재가 같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적성과 자질을 살리고 잠재력을 발휘하게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교육만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에서는 영재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고, 비영재인 학생들의 학력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때에, 영재의 자질과 잠재력을 사장시키고 경쟁 의욕을 저하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면 차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간접적으로 고교 등급화를

작년 수능은 더 쉽게 출제되었다고 하니 수능을 통한 높은 수준의 능력개발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수능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다. 모두가 평준화된 상태에서는 수능 평균이 370점인 학교의 학생들은 쓸데없는 암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뒤쳐진 학교의 학생들은 너무도 어려운 문제를 '찍기'에 바쁘게 될 뿐이다. 교육부는 또한 수능의 결과를 점수화하지 않고 영역별로 9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림>의 C고등학교는 거의 모든 학생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1등급에 속하게 되고, 이 학교 학생들은 그 이상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특기나 창의력이 생길 수 있는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인 것이다.

이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은 난이도가 다른 여러 세트의 수능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전국단위의 고교학력평가 고사 도입이 건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또 다른 수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등학교를 직접적으로 등급화 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제는 각 대학에 실질적인 재량을 주어서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 간접적으로 고등학교의 차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야 한다. 하나의 방법은 대학 별로 특유의 본고사를 부활하는 것이다. 무시험제도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이미 많은 대학이 고유의 학력경시대회를 열고 있다. 이를 종래의 국·영·수 중심의 시험이 아닌,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시험으로 발전시키면, 공정한 경쟁을 통한 다양한 능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형태이든 학생의 노력과 자질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차이를 인정하여 주지 않으면 누가 노력을 할 것인가.

교육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

문제는 어떠한 방법이 도입되든지, 다양한 '과외'를 물고 올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열은 자타가 인정한다. 필자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50년 전의 일을 회상한다. 아버지의 가장 무서운 벌은 "저 놈 학교가지 못하게 책가방 뺏어라."였고, 아버지가 주무시는 동안 책가방을 챙겨서, 다음날 아침은 안 먹어도 학교는 가야만 했던 것이 우리에게 박혀있는 고정 관념이었다. IMF 시대 이전까지 우리 나라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는 이러한 교육열이 큰 몫을 하였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교육열이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였다. 새벽부터 자정이 넘도록 입시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을 비쳐주는 AFKN 방송의 제목이 "세상에 이런 일도!"이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외를 몇 개씩하고, 입시생들의 한 달 과외비가 천만 원을 넘는 일도 생겼다. 교육열이 '과외 망국'이라는 사

회적 문제로 변질되었고, 사교육비 절감이 국가적으로 해결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열을 옳은 방향으로 잡아하려는 것이 이번의 입시제도일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정책들이 과열 과외 방지와 사교육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도가 넘치는 과열 과외의 문제는 교육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다. 사교육비 절감은 죽집게 과외가 쓸모 없음을 이해시키고, 올바르게 벌여 올바르게 쓰는 사회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야지, 교육 자체의 목적과 지향점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입시지옥의 해방이나 고교등급제 불허가 만의 하나 교육열을 감소시켜 공부할 덜 하게 하거나 수준 낮은 교육으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

과학적 검증 필요


이제 끝으로 요즈음 발표되고 있는 다양한 입학제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고교 등급화의 여부도 이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각 대학이 다양한 입학제도를 강조하다 보니, 근래에는 입학제도가 각 대학들의 '아이디어' 각축장으로 변한 느낌이다. 많은 대학들이 검증도 안 된 입학제도들을 공약하고 있는 셈이다. '2천 몇 년까지 몇 % 무시험'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고교등급제 불허가 얼마나 갈 것인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발상의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등의 면에서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를 생략한 채, 실행 결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개혁의 의지 하나만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느낌이다.

몇몇 대학에서 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떨어져도 합리성, 타당성을 갖춘 제도이면 이를 과감히 실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예컨대 논술의 경우를 보자. 논술

은 골라잡기 출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좋은 제도이다. 반면, 각 대학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서 평가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논술고사의 타당성을 높이 사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이나, 떨어지는 객관성 때문에 배점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고교장추천제의 경우, 이 제도는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역시 선발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러한 평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몇백만 원씩 주어서 다른 사람이 작성해 준 자기소개서일 수도 있다.

타당성 검증에서 필자는 이를 직감으로 표현하지 않고, 수치로 표시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얻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과 방안들의 장점과 단점, 효과와 부작용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과연 이러한 개혁이 사교육비 경감에 얼마나 이바지할 것인가? 이를 돈의 액수로 표시할 단계이다. '무시험 고교장 추천제'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이바지할 것인가? 먼저 이 제도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제도일 것인가? 모든 고등학교의 추천은 똑같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현재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비가 연간 10여조 원에 달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믿을 만한 값인지, 오차의 범위가 얼마인지, 통계치이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오차에 대한 언급도 없다.

모든 대학이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고 그 제도를 적용하는 규모와 정도에 대해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교사, 학부모, 산업계 등 사회 전체의 협력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가 너무나도 자주 바뀌어서, 국민 모두가, 대학 모두가 믿지를 못하고 있다. 교육제도에 관한

한. 어떠한 제도이건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결과를 예측하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이니 교육 제도는 한두 해가 늦더라도 충분한 과학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옳다. 단숨에 100% 추진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역효과나 부작용이 나서도 안 되고, 시행착오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김성인

서울대 경제학과와 응용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원 산업공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산업공학과 교수로서 교무처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과학원 초빙교수, 대한산업공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베르누이 시행의 통계적 분석」(공저), 「통계적 품질관리」, 「관리도」 등이 있고,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제4회), 대한산업공학회 학술대상(제6회) 등을 수상하였다.